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고하여 고초를 겪기도 했다. 석구봉은 가짜스님으로 비구니 자매를 겁탈하고 간첩으로 무고 행위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지른 악랄한 놈이었는데 어린 죄수를 성추행하다가 징벌로 우리 사동까지 오게 됐다. 이놈에 얽힌 에피소드도 참 많다. 1심 재판을 받던 도중에 법원에서 내가 드디어 아빠가 되었음을 알았고 그 사실이 우리 사동에 알려지자 장기수 어른들이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우리가족과 동지들도 합의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통방을 통하여 석구봉은 그 이름이 좋지 않다고 주절거렸다. 어쨌든 첫째는 백두산, 둘째는 백태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최열, 윤한봉, 강기종 등 민청학련에 연루된 친구들이 이감되어 왔고 이들이 온 뒤로 2사하는 활기를 띄게 되었다. 그때까지 없었던 운동시간을 요구하는 단식이 일 주일 씩 벌어지고 드디어 하루 삼십 분씩 운동이 허락되었다. 그래도 견딜 만한 교도소 생활이었다.

그동안 출소한 후배들과 밖에서 노심초사했던 동지들은 최성묵 목사님과 더불어 더욱 강한 반독재, 통일 염원을 가꾸었으며 내가 출소한 이후 계명대 후배인 임진호, 김군식, 권오국, 배설남, 배희진 그리고 경북대 한종호, 하종호, 영남대 이태현, 추연창 등과 접촉하며 엠네스티 활동에도 참여했다. 그러던 중 임종호는 부마사태 때 최성묵 목사와의 통화가 도청이 되어 중앙정보부에 끌려갔고 최성묵 목사는 부산에서 체포되어 엄청난 고문을 받았다. 우리는 도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박정희가 시해되어 두 사람은 풀려나고 우리는 또 다른 시대를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출소 때까지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안전법에 걸려 감호처분을 받았다. 법무부에 직송되어 심사를 받은 후 주거제한 처분을 받고 80년 구속 이후 98년까지 보호관찰을 받았다. 80년 이후의 일들은 아마도 또다시 서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현재 나는 '대구 경북 통일연대 상임대표', '5.18 민중항쟁 대구경북 동지회장', '대구경북 민주화운동정신 계승사업회 고문' 등을 맡아 재야에서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의 민주화운동을 바탕으로 일신의 영달을 꾀하고 있는 비열한 옛 동지들을 비롯하며...

담밖에서 싸우고 담안에서도 싸우고

전국대학생연맹사건(세칭 명동성당 학생사건) 옥중투쟁기



선경식_ 한국외대 행정학과 68학번, 언론노동조합연맹(인노련) 조직국장, 중앙일보 <월간중앙> 부장, 노동일보 편집국장, 민주화운동공제회 상임이사(현)

우리들은 1975년 초여름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일번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5월 말, 6월 초에 걸쳐 중앙정보부에서 혹독한 수사를 받은 뒤끝이었다. 중앙정보부는 처음에는 전국대학생연맹(세칭 명동성당학생사건)을 민청학련보다 더 큰 조직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조직 규모나 성격 등을 놓고 일치락 뒤치락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몇 번이나 조서 내용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보부는 당초 우리 조직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힘들자 다음에는 김대중 씨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혈안이 됐다. 우리들은 이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을 당하는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그러나 없는 사실을 시인할 수는 없었다. 결국 우리들은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7인위원회 구성원들은 모두 독방에 수용됐다. 심지연(서울대 대학원), 한경남(고려대), 이명준(중앙대), 박홍석(서울대), 김용석(연세대), 조성우(고려대), 선경식(한국외대)이 바로 그들이었다. 온갖 고문에 시달린 터라 독방일지라도 구치소 감방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다 어쩔 수 없이 붙잡혀 온 우리들은 결코 유신정권에 굴복할

수는 없었다. 재판 날짜가 다가오면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한경남 동지(전 민청련 의장)에게 먼저 내 뜻을 전했다.

2사 상(上)에 있는 내 방 뺑끼통(교도소에서 변소나 변기통을 일컫는 말)에 나가 쇠창살 틈으로 쳐다보면 건너편 사동(1사 상)에 있는 한경남 동지의 감방이 복도 너머로 보였다. 두 사람은 정면이 아닌 비스듬한 상태로 서로 상대방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정도면 통방(通房) 조건은 갖추어진 셈이었다. 손가락으로 허공에 글씨를 쓰면 상대방은 그 내용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이 내가 쓴 글자를 볼 때 반대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말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가.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교도소 재소자들이 능숙하게 사용하는 수화를 활용할 수도 있었지만 익숙하지 못해 대화 속도가 느렸다. 차라리 한글 그대로 허공에 쓰는 것이 속도도 빨랐고 편했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 것처럼 그 뜻을 바로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동지와 나는 바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방법으로 필요할 때마다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물론 교도관들이 통방을 못하도록 감시했지만 소리를 지르는 통방이 아니고 무언의 손가락 통방이기 때문에 바로 적발하고 제지를 하기는 어려웠다.

나는 먼저 그에게 순순히 재판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운을 뗐다. 한 동지도 같은 생각이었다. 유신헌법 반대투쟁을 전개하다 구속된 우리들이 재판을 받을 경우 유신체제를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는 논리였다. 사회에서는 우리 사건이 아예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옥중 투쟁을 벌임으로써 밖에 있는 민주화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투쟁의지를 고취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유신헌법에 대해 일격을 가해 그 권위를 실추시킨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재판 거부의 명분과 실리는 충분했다. 결국 우리는 첫 재판 때 재판정에 나가 재판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른 사동에 흠어져 있는 모든 동지들에게도 통방을 통해 의사를 타진했다. 우리 사건 연루자는 모두 21명이었다. 그 가운데 연세대 출신인 김철 동지(연세대 국문학과 교수)는 현역 군인이라 서울구치소가 아닌 군인교도소에 있었고 이화여대의 박진선 동지는 여사(女傭)에 있었다. 따라서 이들 두 사람과는 근원적으로 연결이 불가능했다.

나머지 19명은 대체적으로 통방을 통해 재판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방 사각지대

에 있는 동지들에게는 검취(검사취조) 때나 가족 면회 때를 활용하여 재판 거부 의사를 확인해나갔다.

이윽고 1심 재판이 열렸다. 아마도 8월쯤이었을 것이다. 우리들은 호송버스를 타고 서소문에 있는 서울지법 대법정으로 갔다. 모두 허리와 팔뚝이 포승으로 묶이고 손에는 수정(수갑)이 채인 상태였다. 우리들은 호송버스 안에서 서로서로 눈빛과 엷은 웃음으로 재판 거부를 확인했다.

출소 후에 확인한 사항이지만 그 당시 재판장은 심훈중 판사였다. 변호인은 홍성우, 조준희 변호사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수정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여 교도관들에게 수정을 풀어주라고 지시했다. 수정은 풀리고 몸은 묶인 상태에서 인정신문에 들어갔다.

재판장이 인정신문을 하기 위해 호명할 때마다 거명된 동지들은 재판장의 질문을 무시하고 유신헌법을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히고 재판 거부를 선언했다. 특히 최열 동지(강원대, 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자신의 차례도 아닌데도 우렁찬 목소리로 재판을 거부한다고 외쳤다. 나도 일어나서 유신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소리쳤다. 그때 방청석에서 “경식이!”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광주에서 아들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올라오신 어머니의 외마디 소리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멈칫 했으나 멈출 수는 없었다. 우리들은 모두 “유신정권 물러가라”, “유신판사 물러가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방청석에서도 우리들의 구호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해방 이후 시국사건 사상 최초의 재판 거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판사들과 검사들은 물론 변호사들도 충격을 받았다. 가족들이 대부분인 방청객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다. 재판정이 소란스러워졌다. 서슬 퍼런 유신독재 치하에서 집단적인 재판 거부 투쟁이 벌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구호를 멈추자 재판장은 계속 재판을 진행하려 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일어서서 법정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문을 향해 돌진했다. 호송 교도관과 정리들이 문 앞을 막아섰다. 우리들은 포승으로 몸이 묶인 채 교도관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밀고 밀치면서 법정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결국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들의 승리였다.

며칠 뒤 심훈중 판사는 한 사람씩 판사실로 불러 재판받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 여러분들은 판사들을 믿고 재판을 받아라. 여러분들에게 중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초점이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얘기였다. 우리들이 재판 거부에 나선 것은 판사 개개인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신헌법에 따라 구성된 유신헌법에서 유신 검사와 유신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판사는 나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변갑규 검사도 7인 위원들을 중심으로 검사실로 소환해 협박과 회유를 병행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보인 것이다. 변 검사는 처음에는 우리들에게 “재판을 받고 빨리 석방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우리들 사건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말했다. 빨리 재판을 받고 나가라는 투였다. 그러나 고집을 피우면 다시 중정(중앙정보부)으로 가서 추가 조사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등 넌지시 위협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회유를 위한 ‘특별 선물’도 주었다. 우리들은 옆방으로 안내됐다. 내 기억이 확실하다면 아마도 박홍석 동지의 큰 누님과 조성우 동지(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의 어머니 등이 그곳에 계셨다.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상황을 알아챌 수 있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자리가 마련됐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가족들은 찬함에 갖가지 음식을 장만해 왔다. 우리들은 책상 앞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다. 모든 음식이 꿀맛 같았다. 담배도 한 대씩 태울 수 있도록 해주었다. 오찬에 초대되지 못한 동지들에게 미안했다.

그리고 다시 구치소 감방으로 돌아갔다. 특별 선물도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오히려 재판 거부를 계속하기로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누군가가 “어떡할 것인가”고 말을 꺼냈지만 결론은 뻔했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 그대로 가야지”. 유신헌제와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옥중 투쟁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변호사들은 구치소로 찾아와 변호사 접견실로 한 사람씩 나오도록 한 다음 재판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재판 거부를 철회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사실 변호사들은 우리들이 끝까지 재판을 거부하는 바람에 할 일이 없어져버린 셈이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홍성우 변호사와 조준희 변호사께 죄송스럽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충분히 우리의 뜻을 이해해주시리라 믿었다.

우리들은 재판 거부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재판장은 결국 재판을 진행하지 못했다. 단 한번밖에 재판이 열리지 못한 것이다. 한참 뒤 법정 소란을 염려해서인지 판사실로 한 사람씩 불러 선고했다. 1975년 12월 2일이었다. 포승에 묶인 채 판사실로 불러간 나는 참담한 심정으로 판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판사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옆으로 돌렸다.

나는 10년 구형에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심지연 동지(경남대 정외과 교수)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명준·한경남·김용석(한국철도공사 감사) 동지는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 박홍석·조성우 동지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되었다. 또 최열 동지는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 강기중(연세대)·정민수(한국외대)·김현웅(고려대) 동지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여석동 동지(경북대)는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 박계동(고려대, 국회의원), 서상섭(서울대, 전 국회의원), 장성효(서울대,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진선(이화여대) 동지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에 각각 처해졌다. 재판 당시 유일한 미성년자였던 이명복 동지(한국외대, 한국기문화연구원 원장)는 징역 단기 4년, 장기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았다.

유신 검찰과 유신 법원은 유신헌제에 맞서 재판정에서까지 투쟁한 우리들에게 중형을 구형하고 중형을 선고한 것이었다. 유신헌제를 인정하지 않은 학생들의 법정 투쟁에 놀란 당국의 보복성 짙은 판결이었음이 틀림없다. 우리들의 재판 거부 투쟁은 언론에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긴급조치9호 위반 사실을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하는 것 자체가 긴급조치 9호에 위반되기 때문이었다. 긴급조치의 악랄성은 이런 데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다음 문제는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였다. 1심 재판을 거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2심 재판도 거부해야 했다. 그런데 법정에 나가 1심 때처럼 거부 선언을 하기도 그랬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소 절차를 밟아야 했다. 아니 재판을 거부한 우리들이 항소를 하다나...,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 그렇다면 항소 포기를 해야 하나. 이것도 문제였다. 항소 포기는 결국 재판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조치였다. 재판을 거부한 우리들로서는 저들이 만들어 놓은 후속 절차를 따를 수는 없었다.

나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그래 항소를 무시하는 거야. 항소 포기 절차까지 무시해버리는 거야 나는 ‘항소 무시’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나는 바로 한경남 동지에게 나의 생

각을 전했다. 물론 ‘손가락 통방’이 대화수단이었다.

우리들은 재판 거부 때와 마찬가지로 손가락 통방을 활용해 사발통문을 돌렸다. 그리고 항소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아예 무시해 버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형량이 적은 동지들이 항소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들이 정해진 항소 기간 안에 항소포기서를 따로 내지 않고 항소를 무시해버리자 법무당국은 이를 항소 포기로 간주한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었다. 그 문제는 우리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들 마음대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런 과정을 거쳐 형이 확정되고 말았다. 일부 동지들은 2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나는 그들이 밖에 나가서도 계속 투쟁해 주기를 바라며 행운을 빌었다.

나는 형이 확정된 후 바로 광주교도소로 이감됐다. 12월 하순쯤이었다. 광주교도소에서는 ‘특사’라고 불리는 곳에 수감되었다. 정확하게는 ‘미전향 좌익수 수용 특별사동’이었다.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전향서를 쓰지 않는 사상범들을 수용하는 곳이었다. 담 안에 따로 담을 두른 이중 감옥이었다. 외부와의 차단은 물론이거니와 교도소 내부와의 차단까지 염두에 둔 특별 시설이었다. 이곳 특사에는 이헌배 선배(운할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와 유인태(국회의원) 김효순(전 한겨레 편집국장) 동지가 먼저 와 있었다. 나는 이곳 0.75평 짜리 독방에서만 3년 6개월 가량 살았다.

1977년부터가 유신독재정권은 광복절이나 성탄절을 앞두고 긴급조치 위반 구속자들에게 각서를 쓰면 형집행정지로 석방시켜 주겠다고 제의했다. 각서는 반성문이고 전향서였다. 각서에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선처해달라. 앞으로는 법과 사회질서를 잘 지키겠다. 석방되면 학업(또는 생업)에만 열중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나의 유신체제 반대투쟁과 재판 거부 투쟁, 항소 무시 투쟁 등을 깡그리 부정하고 백기 투항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다시 말하면 각서는 유신헌법을 인정하고 유신체제로의 복귀를 서약하는 항복문서나 다름없었다.

나는 석방 제의가 들어올 때마다 단호히 거부했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각서를 받아내기 위해 집요하게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힘이 없어 붙잡혀 왔고 어쩔 수 없어 간혀 있다. 나를 더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박정화가 먼저 죽나, 내가 먼저 죽나 보자”

고 버텼다.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각서를 쓸 수 없었다. 만일 일신의 안일을 구하기 위해 각서를 제출한다면 그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악법인 긴급조치9호를 인정하고 나아가 유신독재체제를 용인한 꼴이 될 터였다. 나는 비장한 마음으로 끝까지 버틸 것을 다짐하고 다짐했다. 부모님의 얼굴도 떠오르고 동생들의 모습도 떠올랐지만 그것은 잠깐이었다.

모든 대상자들이 각서를 쓰더라도 나까지 무너질 수는 없었다. 누구 말대로 “그까짓 종이 한 장쯤이야”라고 치부할 수는 없었다. 유신독재 치하 민주화운동의 마지막 보루이자 상징으로 남고 싶었다. 좌익수들이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사상 전향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도 내게는 충격이었다. 그에 비하면 우리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너무 쉽게 타협하고 소신을 굽히는 것 같았다.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도 타협은 타협이었다.

다시 긴 시간이 흘러갔다. 나는 유신독재정권을 무너뜨린 10.26 사태 후인 1979년 12월 중순 마산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긴급조치9호가 긴급조치10호로 해제되면서 나를 붙잡아 둘 죄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는 형집행정지가 아닌 ‘형집행면제’로 석방됐다. 영어의 몸이 된 지 4년 6개월여 만이었다. 나는 마산교도소 문을 나서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7년을 다 채울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게 되다니 참으로 감개무량하였다. 결과적으로 긴급조치9호 위반자 중 최장기 복역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